

사무엘상 19.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삼상 17 장 1-58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어쩌면 사무엘상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 기록된 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란 장수를 앞세워 유다 지방에 속한 소고까지 갑작스럽게 쳐들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 왕은 군대를 모아 저들을 막으려 나아갔지만, 골리앗의 위용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진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형들은 그저 나무라기에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행동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하였고, 결국 사울의 부름을 받은 다윗은 자신이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며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의 굳은 결심을 재차 확인한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은 자신을 비웃는 골리앗을 단번에 넘어뜨린 후,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 목을 베며 승리하였습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골리앗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블레셋 군사들은 그 순간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에 바빴고, 반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의 승리로 용기를 되찾고 블레셋 진영까지 저들을 추격하여 무찌르며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도전. (1-11 절)

- 1) 블레셋은 이스라엘 유다 지방에 속한 소고까지 갑작스런 침략을 감행하였습니다. (1-3 절)
 - ✧ 이렇게 블레셋이 갑작스런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 아마도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무엘과 사울)의 불화와 사울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것을 침략의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한가지는 악한 사탄은 항상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나타나는 여러 불화와 혼란을 기회로 삼아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
 - ✧ 이에 사울은 군대를 모아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였습니다.

- 2) 이때 이스라엘 진영 앞에 싸움을 돋우는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4-7 절)
 - ✧ 골리앗 = 가드 사람, ‘싸움을 돋우는 자’
 - ✧ 키는 여섯 규빗 한 뼘 (약 3m 정도), 머리엔 놋 투구, 몸에는 놋 비늘 갑옷 (약 57kg), 다리에는 놋 각반, 무기는 베틀 놋 창 (창 날의 무게 만 6.8kg), 그 옆엔 방패 든 자

- 3) 골리앗은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모욕하며 조롱하였습니다. (8-11 절)
 - ① 우선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며,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신복’ 이라 칭함!
 - 곧 자신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임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군대는 다 사울의 종이라고 무시하였음.
 - ② 누구든지 한 사람을 택하여 자신과 싸우자고 요청!
 - ③ 자신이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것.
 - 곧 골리앗은 자신의 육신적인 힘과 능력만을 확신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의 교만을 골리앗과는 육신적으로 결코 비교할 수도 없이 연약한 다윗을 통해 완전하게 꺾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 4:6 절)

- 4) 이런 골리앗의 조롱 소리를 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크게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 ✧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과 두려움의 마음이 아닐까?

2. 이때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12-19 절)

- 1) 이새에게 총 8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15 절)
 - ✧ 그런데 당시 장성한 아들 장자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전쟁에 참여함.
 - 곧 막내 다윗은 그때까진 아직 전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명히 어린 소년이었을 것!
 - ✧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음! (15 절)
 - 곧 16 장에 소개된 다윗이 사울을 위해 음악을 연주한 것은 고정적인 일은 아닌 듯.

■ 16 절 주목: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 2) 이새는 다윗에게 음식을 형들에게 전해준 후, 증표를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17-18 절)
 - ✧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3.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20 -30 절)

- 1) 이새의 명에 순종하기 위해 다윗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치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습니다. (20 절)
 - ✧ 작은 일도 성실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다윗의 삶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음.
 - ✧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아신다! (마 25:21)
- 2)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25 절 주목 -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주기로 한 사울의 약속 즉 상금은?

- ✧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할 것
- ✧ 자신의 딸을 그에게 줄 것 (곧 사위를 삼을 것)
- ✧ 그의 아비 집은 세금을 면제해 줄 것

? 만약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때도 이런 상금을 걸었을까?

■ 26 절 주목 - 그럼, 골리앗의 조롱하는 말을 들은 다윗의 첫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 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 이 물음은 상금이 무엇인지? 를 확인하기 위한 물음이라기 보다는, 왜? 가만있는가?란 의미의 반어법적인 질문이라 생각해야 할 듯!
- ②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사람’ 이라 칭함 -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누가 한 말?_____
- ③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
 - 그 곳에 모인 사람들 중 오직 다윗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음!
 - 모두가 골리앗의 말, ‘이스라엘은 사울의 심복’ 이란 말에 침묵 (동의)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은 사울의 심복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선포!

3) 이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책망하였습니다. (28 절)

- ① 어찌하여 이곳으로 왔는지?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는지? 따짐!
- ② 자신은 다윗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고 책망!
- ③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책망!

- ✧ 그러나 그는 동생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았지, 결코 동생의 믿음과 영적인 능력 곧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
 - 또한 이런 엘리압의 책망은 동생을 아끼고 사랑해서 한 말이라기 보다는 그저 자기 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과 열등감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추측..
- ✧ 우리도 가족과 형제를 볼 때 그저 외형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믿음과 영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다윗은 형 엘리압이 화를 낼만한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지금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분노해야 할 이유가 ‘어찌 없느냐? 며,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4. 다윗의 의로운 분노를 전해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31-40 절)

■ 주목 3. 사울을 만난 다윗의 고백.

- ① 위로 :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 자신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
- ② 경험 :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끼 양을 훔쳐가는 사자나 곰도 굴복시킬 수 있었음!
- ③ 확신 : 따라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도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음!
- ④ 근거 :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당연히 지켜 주실 것!

✧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는 자의 힘이 되심을 기억! (시편 18:1)

1) 이에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 칼을 주며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38-40 절)

- ✧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신과 익숙하지 않다며 거절!
- ✧ 평소처럼 나무 막대기,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다섯 개, 물매만을 가지고 나아감!

이런 다윗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취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조건과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5.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승리하였습니다. (41-54 절)

1) 다윗을 처음 본 골리앗의 반응은? (42-44 절)

- ① 업신여김! - 다윗의 외적 조건만 보고.. (짧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
- ② 자신을 개로 여겨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며,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함!
- ③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고 헐박함!

2) 이런 골리앗을 맞이한 다윗의 반응은?

- ① 지금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
- ② 오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기에, 자신이 그의 목을 베고, 나아가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임을 선포! - (3 번의 골리앗의 헐박과 비교해 보라~)
- ③ 여호와와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 선포!
- ④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자신의 손에 분명히 넘겨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

곧 골리앗을 죽이려는 다윗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는 목적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 다윗은 미리 준비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넘어뜨린 뒤,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며 승리하였습니다.

4) 그 순간 골리앗의 처참한 최후를 목격한 블레셋 병사들은 기력을 잃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 ✧ 결국 자신들의 장수 (인간적인 힘)만을 의존한 나머지 그것이 사라지자 싸울 의지조차 상실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 반대로 다윗의 승리를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일어나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쫓으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선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승리가 힘을 잃고 낙망가운데 빠져있던 공동체 전체를 다시 일으키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6.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이 누구인지 확인하였습니다. (55-58 절)

- ✧ 다윗의 승리에 대한 놀라움과 관심의 표현 + 약속한 상급으로 인한 관심의 표현